

ILO에서

인터넷(<http://www.ilo.org>)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International Hazards Datasheets on Occupations'에 소개된 항목을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번역을 의뢰하여 소개합니다.

경찰/법률 집행관 (police/law enforcement officer)

1. 경찰/법률 집행관은 누구인가?

경찰은 시민과 사회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질서의 유지, 교통법규와 다른 법규를 집행, 알콜중독과 마약중독(약물남용)을 막고, 이웃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화기물과 무기 사용을 제한한다. 이들은 관련된 국가나 지역 사회의 기관 또는 법에 의해서 위임받음으로써 법 집행이나 수사를 할 수 있다.

2. 이 직업에서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공격을 받아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사회규범이나 법질서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범죄자, 폭력배 등으로부터 다칠 수 있고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동료들의 총기 오발사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 자동차 충돌, 용의자 검거 중 추락, 구조나 유사한 작전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속에 있다.

- 물리적 위험, 길고 불규칙적인 업무시간과 끊임없는 염려 속에서 살아야 하며, 삶의 유쾌하지 못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흔히 심리적인 스트레스, 가족과 개인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특히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사람들과 피할 수 없는

역. 방사선보건연구원 김 수근



접촉을 함으로써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속에 있다.

3. 직업상 위험요소

1) 사고로 인한 위험들

- 긴급상황에 대처할 때와 응급치료 및 응급처치 상황시, 운전할 시, 폭동제압 상황시에 일어날 수 있다.
- 용의자 추적시 지붕을 오르내리거나 할 때,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다.
- 용의자, 범죄자와 그들의 동조자에 의해서 칼이나 금속막대기(권총),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 주변의 인물들에 의해서 임의로 혹은 부주의로 인해 쏜 총에 의해 다칠 수 있다.
- 화기물의 손질이나 운반시 자초한 상처 등
- 도주하는 자동차를 추적하거나 응급호출로 빠른 질주를 할 경우에 차나 오토바이와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2) 물리적 유해인자들

- 환경요인 즉, 춥고 낮은 온도, 비, 바람, 눈, 태양광선 등에 의해서 감기, 일사병, 탈진이 급성으로 올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관절염이 올 수 있다.
- 총을 발포할 때나 사이렌 소리의 높은 소음에 노출될 수 있다.
- 커튼에서 쏜 총소리는 160㏈까지 되므로 한번에 청신경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3) 화학적 유해인자들

- 자동차 배기가스나, 사격 연습장에서나, 지문 작업을 할 때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 높은 수준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수 있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들

- 전염병에 걸릴 위험(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염병 간염, 광견병)이 있다. 원인은 오염된 주사기 바늘, 인간이나 동물에게 물릴 경우,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경우 등이다.
- 정밀검사, 수색, 관찰을 목적으로 오염된 지하실이나 저장용 지하실에 들어갈 경우, 벌레들 혹은 쥐와 같은 동물들에 의해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5) 인간공학적, 정신사회적 및 조직적인 요인들

- 차 안에서 장시간 근무할 경우 골격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등의 아래쪽 부위 통증).
- 광범위한 순찰구역을 장시간에 걸쳐 일할 경우에 하지에 축적되는 외상장애(특히 순찰관)가 생길 수 있다.
-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든 심각한 손상이나 죽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면, 담당 경찰관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에 빠질 수 있다.
- 다양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는 비정상적인 행동, 부부 혹은 가족간의 문제, 때때로 알콜이나 약물(마약) 남용).

·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문제들은 자주 변경되는 일, 불규칙적인 근무시간(밤도 포함), 끊임없는 경계상황(쉬는 날도 포함), 계급적인 사회에서의 전형적인 경찰제도, 법적 강요, 비슷한 사회심리학적인 요인들 내에서의 동료와 선배와의 관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

· 활동적인 임무와는 반대로 서류 작업도 또한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4. 예방수단

·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임무 수행 중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조끼를 착용한다.

· 총의 소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합한 기구를 착용한다.

· 구조작업시, 약물중독자를 다룰 때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체액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베이거나 상처받은 피부의 오염된 체액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간염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는 오염요인은 피해야 한다.

· 인간공학적, 사회심리학적 요인 및 관리기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화가 나는 경험을 접한다면 전문가로부터 심리학적인 혹은 직업상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인간공학적, 사회심리학적 요인 및 관리기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건강,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의 가정과 개인생활에 최소한의 피해가 생기도록 근무교대일지를 선택한다.

5. 직업사전

1) 유사명칭

경찰관(여자 경찰관), 법률 집행관, 순경(경관), 짭새(속어)

2) 관련직업

- 경찰-신원확인 및 기록부
- 경찰-지역사회
- 경찰-교통부
- 경찰-민사 소송 평가단
- 경찰-경찰-동력화/설치화 단위
- 경찰-조사부
- 경찰-살인범
- 경찰-경찰학교 교육관
- 경찰-비행(악덕행위)
- 경찰-내부 사무부, 경찰-지문검사부
(이와 더불어 탐정은 위에서 언급한 직업과 각각의 연관이 있을 것이다.)
- 시 경찰서장
- 행정관 대리인
- 군인

3) 정의 및 설명

- 공격, 노상강도, 도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죄수를 감옥이나

감금시설로 수송할 때 감시한다.

- 교통정리를 하며 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 범칙금 통지서(법원소환장)를 발부한다.
- 사고 난 장소에 전문인(의사, 간호사, 의사보조원)이 없는 경우, 응급처치를 위해 사고장소에 모여있는 군중을 해산시킨다.
- 용의자 체포시 근거를 제시하고 체포한다.
- 사체로 들어 온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체검사, 치과 X-선, 지문 등 여러 정보를 이용한다.
- 경찰서에 구류 중인 죄수나 심리 중인 유치장의 죄수를 보호한다.
- 모든 죄수에게서 총기, 밀거래품, 마약, 유해물질 소지를 검사한다.

· 범죄자와 그 체포 이유를 조사하여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여 치안판사에게 보낼 권고장을 만든다.

· 대부분의 관할구역에 있어서, 근무 중이던 아니던 경찰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임무를 다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4) 수행직무

체포, 시민 돋기, 추적, 저지, 상담, 교통정리, 운전, 평가(증거, 진술 등), 검사, 구치, 발부(범칙금 통지서, 보고서 등), 지문검사, 범죄자 구금, 조사, 타협, 순찰, 보호, 반응(호출, 경고 등에 대해), 보고, 달리기, 사격, 달려들기(돌격), 입증, 훈련

5) 주로 사용하는 장비

- 통신수단
- 여러 종류의 이동수단(주로 자동차)

· 무기(개인 소화기 포함)

- 개인보호장비(방탄조끼, 헬멧, 방패 등)
- 폭동진압장비(수갑, 곤봉, 연막탄, 척탄통, 그물 등)

6) 주로 근무하는 장소

- 행정당국에 따라 다른 수준임(주, 지방, 시, 지역 등)
- 여러 종류의 법 집행기관(시민, 군사 또는 준 군사)

6. 주목할 점(주의할 점)

· 사격 훈련 연습장 교관은 주기적인 소변,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경찰이나 법 집행관은 공공장소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의식과 사회적 의식에 따라 존경받을 수도, 싫어하지만 칭찬하는 척 하는 태도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이나 법 집행관도 사람이므로 감정의 변화로 화를 낼 수도 있다.

· 위와 같은 상황은 불필요한 행동(특히 제3자에게나 또는 시간이 지난 후 스트레스가 감소된 후 자신이 볼 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 강등당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해직당할 수도 있으며 연금이 깎일 수도 있다.

· 경찰관이나 법 집행관은 일반인보다 심혈관질환(심장발작, 뇌졸증) 발병률이 200% 높다.

7. 사례

1) 직업상으로 인한 비염

시위진압이 주임무인 경찰 기동대장이 최루가스를 많이 마셔 비염 등의 질병에 걸렸다면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8일 경찰대 학생과장(이OO·56) 총경이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면서 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만성비염 등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96년 7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 대장으로 일한 이총경은 전·의경 12개 중대 1,900여명을 이끌고 시위에 출동, 방독면도 쓰지 못한 채 진압작전을 지휘하다 96년 10월 병원에서 만성비염 및 비인후염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총경은 96년 8월 한총련 연세대 시위, 97년 노동법 재개정 요구시위와 한총련 출범식 시위 등 70여 차례나 시위진압을 지휘

했다.

2) 건강실태

경찰의 건강상태가 건강진단 결과로 볼 때 공무원 중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공무원-교직원 피보험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1차 건강진단을 받은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자 126만 6천 명 중 군인의 정상 판정률이 5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체신직(48%), 교육직(47.5%), 사립교원(47.1%) 등의 순이었으며 경찰직(40.7%)이 가장 낮았다. 반면 질환의심 판정률은 경찰직이 2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ncyclopa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th Ed., ILO, Geneva, 1998, Vol.3, p.95.9 - 95.12.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 U.S. Dept. of Labor, 1996 - 1997 Ed., p. 303 - 306.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Medicine, by William N. Rom (Ed.), Little, Brown & Co., 1992, p.729. ■■■